

# 현대 중국어 겹어문의 의미특성 분석과 오류 유형\*

민재홍\*\*

## 目 录

1. 들어가기
2. 겹어문 'V<sub>1</sub>'의 의미특성 유형 분류
3. '使 겹어문과 '宥' 겹어문의 비교
4. 겹어문 사용 오류 유형 분석
5. 나가기

## 1. 들어가기

현대 중국어의 겹어문은 특수 문형 중 하나로 '주어(主語) + 선행술어(謂語) + 겹어(兼語) + 후행술어(謂語)'의 구조를 갖는다. 한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성분(兼語)이 빈어와 주어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 통사론적 분석에서는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의 구조로 설명한다. 물론 통사론에서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의 句式과 층차를 갖는 문장들이 모두 겹어문은 아니다. 연동문도 이 문형에 해당되고, '我希望你明天再來'와 같은 '주술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의 구조도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의 동일한 문형을 갖는다. 따라서 통사론에서 동일한 층차분석이 되어 통사적으로는 구별해 낼 수 없는 문형에 대해, 의미론적 어법 기제를 통하여 겹어문을 변별해 내는 연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의미특성(semantic feature), 施事(주체)와 受

\* 본 연구는 2014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德成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事(객체), 施事題元(주체 주제항), 受事題元(객체 주제항) 등의 의미론적 어법 기제를 이용하여 꺾어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꺾어문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에서 각 네 성분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중 'V<sub>1</sub>'이 꺾어동사이고, 'V<sub>1</sub>'은 'V<sub>2</sub>'의 동작 행위를 이끌어내는 의미 구조를 갖기 때문에 'V<sub>1</sub>'과 'V<sub>2</sub>'가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이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V<sub>1</sub>'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꺾어문을 구성하는 표지로서 중요한 어법적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꺾어동사 'V<sub>1</sub>'을 의미특성에 따라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꺾어동사가 보편적이지만,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꺾어동사도 존재한다. 이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유형을 더 세분하여 유형별로 분석을 하였다. 꺾어문 같지 않지만 틀림없이 꺾어문인 이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 유형들은 중의성(歧義 ambiguity)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논의 가치가 더 있다.

또한 꺾어문 중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使'꺾어문과 '使'꺾어문을<sup>1)</sup>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使'꺾어문과 '使'꺾어문에 사용된 'N<sub>1</sub>'과 'V<sub>2</sub>'를 이용하여 두 꺾어문의 어법적 기능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어 교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꺾어문의 실제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어의 꺾어문 구조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우리 국어에는 꺾어문 구조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국어 교학 현장에서 학생들이 꺾어문 구조를 만들어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빈번하게 오류가 만들어낸다. 이러한 오류의 방식을 꺾어문 구성 성분 별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2. 꺾어문 'V<sub>1</sub>'의 의미특성 유형 분류

꺾어문에는 'V<sub>1</sub>'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꺾어동사가 없으면 꺾어문 구조

1) 이 글에서는 '使'자 꺾어문을 '使'꺾어문으로 약칭하고, '使'자 꺾어문을 '使'꺾어문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가 될 수 없다. 겹어문을 구성하는 표지로서 'V<sub>1</sub>'은 중요한 어법적 기능을 한다. 'V<sub>1</sub>'을 담당하는 동사들을 의미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대부분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동사가 주류이다. '~~하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로 '請, 讓, 叫, 使, 令, 派, 求, 勸, 動員, 要求, 請求, 命令, 禁止, 強迫' 등이 'V<sub>1</sub>'를 담당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V<sub>1</sub>'이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겹어문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반면 통사적으로 겹어문에 해당하는 문형 중, 'V<sub>1</sub>'이 [+사동]의 의미를 갖지 않는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통사적 의미론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1) [+사동]의 의미특성 'V<sub>1</sub>'

[+사동]의 의미특성 'V<sub>1</sub>'을 좀 더 세분하여 의미특성 별로 분류하면, [+사역], [+명령], [+권유], [+부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 [+사역]의 의미특성 'V<sub>1</sub>'

使(사역)의 의미특성을 갖는 선행 동사들로, '使, 叫, 讓, 令, 要, 找, 導致, 說服, 利用, 號召, 組織, 發動, 動員' 등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 他們要小錫匠答應不再走進黃家的門。
- (2) 那瘦弱的身影使他不由地湧起一片憐憫之情。
- (3) 這個鏡頭令我很是吃驚。

##### (2) [+명령]의 의미특성 'V<sub>1</sub>'

'V<sub>1</sub>'이 命令(명령)의 의미특성을 갖는 동사로, '命令, 禁止, 布置, 安排, 分配, 介紹, 指定, 派, 要求'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4) 我就**命令**自己什麼也不想做。  
 (5) 她**安排**孩子們都睡下了。  
 (6) 上級**分配**我搞旅遊。  
 (7) 宋東山又**介紹**他入團入黨。

(5)에서 ‘安排’는 겸어동사로 사용되었지만, ‘安排吃住’(먹고 살 곳을 준비하다)처럼 述賓구조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 (3) [+권유]의 의미특성 ‘V<sub>1</sub>’

‘V<sub>1</sub>’이 勸令(권유)의 의미특성을 갖는 동사로는, ‘鼓勵, 請, 勸告, 囑咐, 通知, 告訴, 催, 教’ 등이 있다.

- (8) 小華**囑咐**他路上小心亂機。  
 (9) 人們**告訴**我必須有百折不回的毅力和決心。

### (4) [+부탁]의 의미특성 ‘V<sub>1</sub>’

‘V<sub>1</sub>’이 委託(부탁)의 의미특성을 갖는 동사로, ‘委託, 託, 拜託, 請求, 求’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10) 她們都**託**她買東西。  
 (11) 媽媽**請求**你諒解。

이상의 겸어문 문형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에서 ‘V<sub>1</sub>’이 겸어동사이고, ‘V<sub>1</sub>’은 ‘V<sub>2</sub>’의 동작 행위를 이끌어내는 의미구조를 갖는다. 또 ‘V<sub>2</sub>’의 施事題元(주체 주체항)은 ‘N<sub>2</sub>’이다.<sup>2)</sup> ‘我們選他當班長.’에서 ‘V<sub>2</sub>’인 ‘當’의 주체 주체항은 ‘N<sub>2</sub>’

2) 주체항(題元 theme)은 의미(語義)의 단위로, 한 문장 속에서 ‘동사’와 관련된 의미 단

인 ‘他’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 2) [-사동]의 의미특성 ‘V<sub>1</sub>’

위의 예들과는 달리 ‘V<sub>1</sub>’이 분명히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진 않지만, 겹어문 문형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을 갖추면서 겹어문의 형식을 구성하는 예들이 있다. 통사론적으로는 틀림없는 겹어문이지만, 의미론 분석의 의미특성으로 파악할 때,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보편적이지 않은 겹어문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 (1) [-사동][+도움 협조]의 의미특성 ‘V<sub>1</sub>’

‘V<sub>1</sub>’이 사역이나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진 않지만, 도움이나 협조의 의미특성을 갖는 동사들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送, 陪, 幫, 幫助, 協助, 配合’ 등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2) 我們送他去美國。

(13) 他們幫助我洗碗。

(12)와 (13)의 선행동사인 ‘送’과 ‘幫’은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지만, 겹어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12)에서 ‘우리들이 그와 함께 미국을 갔다’면 이 문장은 연동문이 되고, ‘우리들은 가지 않고 그가 미국을 가도록 배웅했다’면 겹

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他在朋友家裏喝茶.’라는 문장을 주제항으로 분석할 때, 동사 ‘喝’와 관련된 다른 성분들을 주제항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때 ‘他’는 施事題元(주체 주제항)이 되고, ‘在朋友家裏’는 方所題元(장소 주제항), ‘茶’는 受事題元(객체 주제항)이 된다. 동사와 관련된 다른 문장 구성 단위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어문이 된다. (13)역시 마찬가지이다. 歧義(ambiguity)가 생기는 문장이다. 즉 상황에 따라 연동문과 겹어문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두 술어를 지배하는 주어가 동일한 주어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두 동사 ‘幫助’와 ‘洗’의 동작 주체자가 ‘他們’으로 동일한 경우, ‘그들은 나를 도와 설거지를 한다.’로 해석되고, ‘그릇을 닦는 주체가 그들’이 되면서 연동문이 된다. 반면, 선행동사 ‘幫助’의 빈어인 ‘我’가 후행동사 ‘洗’의 주어가 되는 구조이면 겹어문으로 파악된다. ‘그들은 내가 설거지하는 것을 돕는다.’라는 뜻으로, ‘그릇을 닦는 주체가 나’가 되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도 모두 歧義가 생기는 경우이다.

(14) 他扶着病人走進診室。

그는 환자를 부축하여 진찰실로 들어갔다. (연동문)

그는 환자가 진찰실로 들어가는 것을 부축하고 있었다. (겹어문)

(15) 他陪我讀書。

그는 나와 함께 책을 읽는다. (연동문)

그는 내가 책을 읽는 것을 도와준다. (겹어문)

(14)에서 ‘他’가 환자를 부축하여 자신이 진찰실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면 연동문의 형태이고, ‘他’가 환자를 부축만 하고, 진찰실에 들어간 주체를 환자로 파악한다면 겹어문이 되는 것이다. (15)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단순히 구조형식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어 구조형식이 같은 문장은 모두 동일한 어법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언어현상과 규율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실제 언어 중 발화 당시의 언어 환경인 語境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민재홍, 2014a)

즉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구조에서 ‘N<sub>1</sub>’이 ‘V<sub>1</sub>’과 ‘V<sub>2</sub>’ 모두의 施事題元(주체 주체항)이면 연동문이 되고, ‘N<sub>1</sub>’이 ‘V<sub>1</sub>’의 주체 주체항이고 ‘N<sub>2</sub>’가 ‘V<sub>2</sub>’의 주체 주체항이 되면 겹어문이 되는 것이다. 이 유형의 동사들은 두 문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重義性이 있다.

[-사동]이면서 [+추종]의 의미특성을 갖는 동사 ‘跟, 隨, 追隨, 跟從, 隨從’

등도 위의 분석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他們跟隨部長出國訪問.’의 경우에도 연동문과 겹어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2) [-사동][+애증 호오]의 의미특성 ‘V<sub>1</sub>’

‘V<sub>1</sub>’의 의미특성이 찬성, 질책, 애증, 호오 등과 같은 심리동사들이 있다. 이 겹어 구조에서 선행 술어인 ‘V<sub>1</sub>’과 후행 술어인 ‘V<sub>2</sub>’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동사로는 ‘表揚, 喜歡, 佩服, 笑, 罵, 愛, 恨, 感謝, 埋怨, 誇獎, 稱讚, 嫌, 討厭, 怪, 謝, 指責, 批評, 羨慕, 氣, 怨’ 등이다.

- (16) 群眾**喜歡**他辦公公道。
- (17) 大家都**嫌**他說話囉嗦。
- (18) 沈培的丈夫與女兒雙雙迎出來接沈培, **埋怨**她遲回家。

위에서 ‘V<sub>1</sub>’과 ‘V<sub>2</sub>’의 의미관계를 살펴보면, ‘V<sub>2</sub>’의 행위는 ‘V<sub>1</sub>’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16)에서 ‘辦公公道’(일처리가 공정한 것)로 인해 ‘喜歡’(모든 사람이 좋아하는)의 심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V<sub>2</sub>’로 인하여 ‘V<sub>1</sub>’이 발생하는 의미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V<sub>2</sub>’의 행위가 ‘V<sub>1</sub>’의 심리 활동 이전에 발생하는 것도 알 수 있다.

또 이 유형의 어법적 특징은 ‘N<sub>1</sub> + V<sub>1</sub>’과 ‘N<sub>2</sub> + V<sub>2</sub>’ 사이에 ‘~~的是’를 추가하여 문장의 일시 정지(pause)나 休止(멈춤), 停頓(잠깐 쉬)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16)은 ‘群眾喜歡的是他辦公公道.’가 되고, (17)은 ‘大家都嫌的是他說話囉嗦.’처럼 변형할 수 있다.

다만 이 구문에 대해 겹어문이 아닌 다른 문장구조로 설명하는 어법학자들도 있다. 孟琮이 대표적인데, 그는 1987년 『動詞用法詞典』에서 이 유형의 문장들을 모두 ‘주술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로 파악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9) 我 **喜歡** 他 對自己那麼熱烈。  
 (20) 我 **以為** 她 考上大學。  
 (21) 我 **希望** 你 一定再來。

위의 (19)(20)(21)은 모두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의 통사론적 구조를 갖는다. 孟琮은 (19)(20)(21) 모두 'V<sub>1</sub>'인 '喜歡, 以為, 希望'을 '목적절을 받는 동사'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 목적절 'N<sub>2</sub> + V<sub>2</sub>'은 반드시 '주어+술어'의 구조여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술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로는 '說, 看, 想, 忘, 怕, 以為, 認為, 記得, 知道, 相信, 發現, 盼望, 忘記, 同意' 등 '생각, 발언, 지각'의 의미특성을 갖는 동사들이 있다. 이러한 문형은 목적절 'N<sub>2</sub> + V<sub>2</sub>'가 주술구조의 넥서스(nexus)를 갖는 특징이 것이다. 이런 분석에 의하면 (19)는 겹어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어법적 논란이 있는 (19)에서 '喜歡'은 겹어문을 이끄는 동사로 파악되거나, '주술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로 문형파악이 달라진다. 그러나 (20)의 '以為'와 (21)의 '希望'은 분명히 겹어문이 아닌 '주술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로 밖에 파악할 수 없다.

### (3) [-사동][+소유 존재]의 의미특성 'V<sub>1</sub>'

'V<sub>1</sub>'이 [-사동][+소유 존재]의 의미특성을 갖는 유형으로, 선행 술어 '有' 뒤의 목적어가 후행 술어의 행위 주체가 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동사로는 '有, 沒有, 輪, 是'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2) 小王**有**個親戚在深圳打工。  
 (23) 後面**有**幾個人哭起來了。  
 (24) 以前**有**一個女子叫孟姜女。  
 (25) 今天**輪**我打掃衛生。  
 (26) **沒**有一個學生往教室裏走。  
 (27) **是**他帶頭衝上去。

이상은 모두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의 통사론적 구조를 갖추고 있고, (22)(23)(24)는 모두 'V<sub>1</sub>'인 '有' 뒤의 'N<sub>2</sub>'가 겹어가 되는 전형적인 겹어문 구조이다. 이 구문에서는 특히 'N<sub>1</sub>'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2)의 '小王'처럼 施事主語(주체주어)가 직접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23)의 '後面', (24)의 '以前', (25)의 '今天'처럼 장소사와 시간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26)과 (27)에서는 'N<sub>1</sub>'이 생략된 空主語(empty subject)의 형태로 나타난다. (27)의 '是'자문에서 '他'가 '是'의 목적어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보아 系事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다음의 선행 술어 '有'가 들어간 예문을 살펴보자.

- (28) 我 **沒有** 時間 吃飯。  
 (29) 我 **有** 一句話 跟他說。  
 (30) 大家 **有** 決心 完成這個任務。

모두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의 통사론적 구조인데, 의미론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N<sub>2</sub>'인 '時間, 一句話, 決心'이 모두 'V<sub>2</sub>'의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형들은 겹어문이 아니라 연동문으로 파악된다. 의미론으로 분석해도 마찬가지다. (28)에서 '我'는 '沒有'와 '吃'의 공통적인 주체 주체항, (29)에서는 '我'가 '有'와 '說'의 공통 주체 주체항, (30)에서는 '大家'가 '有'와 '完成'의 주체 주체항이다. 통사론적 구법에서는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문장이지만, 'N<sub>2</sub>'와 'V<sub>2</sub>'의 의미론적 관계, 주체항 관계의 변별성 차이에 따라 문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체항 같은 의미론의 어법 기제를 활용하면 통사론적 구법 분석을 뛰어넘어 다원적인 문형 변별이 가능해 진다.

#### (4) [-사동][+호칭 인정]의 의미특성 'V<sub>1</sub>'

선행 술어로 '稱, 選, 追認, 調, 提撥' 등과 같이 [+호칭 인정]의 의미특성을 갖는 동사들이 사용된 겹어문이 있는데, 이때 후행 술어는 주로 '爲, 當' 등과

같은 관계동사가 담당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31) 大家稱蘇杭爲地球的庭園。  
 (32) 我們選金同學當我們的班長。  
 (33) 局里準備提撥他當副局長。

이와 같은 유형의 선행 술어 역시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지 않지만, 모두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의 통사론적 구조를 갖는 겹어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후행술어인 'V<sub>2</sub>'를 담당하는 동사는 [+동작]의 의미특성을 갖지 않는다. 모두 'N<sub>2</sub>'와 모두 'N<sub>3</sub>'의 관계를 규정하는 동사 '爲, 當, 叫, 作' 등이 사용되는데, 이는 [-동작]의 의미특성을 갖는 비동작 동사에 해당된다. 위의 예에서 'V<sub>2</sub>'인 관계 동사를 아래와 같이 생략할 수 있다.

- (31a) 大家稱蘇杭地球的庭園。  
 (32a) 我們選金同學我們的班長。  
 (33a) 局里準備提撥他副局長。

이렇게 되면 (31a) '大家稱蘇杭地球的庭園。'은 직역하여 '모든 사람들은 蘇州와 杭州에게 지구의 정원을 호칭하다'로 되고, '稱'이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 '蘇杭'은 간접목적어(近賓), '地球的庭園'은 직접목적어(遠賓)으로 분석된다. 즉 한 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이중 목적어 구문(雙賓句)로 간주된다. (32a)에서도 '金同學'가 간접목적어, '我們的班長'이 직접목적어가 되는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파악되고, (33a)에서도 동사 '提撥'가 간접목적어 '他'와 직접목적어 '副局長'을 받는 수여동사 형식이 된다. '我提名魏錦星優秀教師。'(나는 魏錦星을 우수교사로 지명하였다)라는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면 선행술어인 '稱, 選, 提撥, 提名'이 모두 [+수여]의 의미특성을 갖는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 3. ‘使’겹어문과 ‘令’겹어문의 비교

#### 1) ‘使’겹어문과 ‘令’겹어문의 ‘N<sub>1</sub>’

‘使’겹어문과 ‘令’겹어문에서 ‘N<sub>1</sub>’은 ‘N<sub>2</sub>’의 결과나 상태를 이끌어 내는 의미를 갖는다. 통사론 구법에서 ‘N<sub>1</sub>’을 담당할 수 있는 문법 성분은 명사와 대명사 등 명사성 성분, 主謂구조, 동사와 형용사가 명사화되어 사용되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4) 這使馬林生漸生嫌厭。
- (35) 今天這頓酒使我想起了很多已經忘却的往事。
- (36) 後來的情景令馬林生很感動。
- (37) 天空有些風, 羽毛球順風時便會像子彈一樣飛得快, 令人猝不及防。
- (38) 中國高層對艾滋病問題的關注令人鼓舞。
- (39) 白孝武很受鼓舞, 這件事無疑做到了父親心上, 得到父親贊許令他情緒高揚。

(34)에서는 지시대명사, (35)에서는 수량구조, (36)에서는 수식구조의 명사성 성분이 ‘N<sub>1</sub>’을 담당하였다. (37)에서는 주술구조의 완전한 문장이 ‘N<sub>1</sub>’의 역할을 하였다. (38)에서는 ‘N의V’ 형태가 명사화되어 주어로 사용되었고, (39)에서도 동사 ‘得’가 명사화되어 ‘使’겹어문과 ‘令’겹어문의 ‘N<sub>1</sub>’을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使’겹어문의 ‘N<sub>1</sub>’과 ‘令’겹어문의 ‘N<sub>1</sub>’ 사이에는 어떤 차이나 구별이 있을까? 그동안 겹어문 연구나 논의 중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칭대명사 'N<sub>1</sub>'

인칭대명사는 '使'겸어문의 주어인 'N<sub>1</sub>'이 될 수 있고, '使'자 앞에는 조동사, 부사 등이 올 수 있다. '令'겸어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40) 鄧小平改變了中國，也在某種程度上改變了世界。他使世界重新對中國充滿尊敬。  
 (41) 我們必須使出口控制系統具有普遍性。  
 (42) 他令我放心不下。  
 (43) 我肯定令大家失望了。

(40)과 (41)은 '使'겸어문, (42)와 (43)은 '令'겸어문으로 통사적 차이와 의미적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令'겸어문의 경우 'V<sub>2</sub>'를 담당하는 품사가 (42)의 '放心', (43)의 '失望'과 같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일 때는, '令'이 '使'와 달리 [+명령]의 의미 특성을 갖게 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44) 我已令我的助手，將今天交談的內容全部打印出來。  
 (45) 他令德國的所有主教向國社黨政府表忠。

(44)와 (45)의 'V<sub>2</sub>'인 '打印出來'와 '表忠'은 형용사가 아닌 동사로, 이 때 '令'겸어문의 '令'은 [+명령]의 의미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 문장을 '使'겸어문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使'겸어문에는 명령의 의미특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지시대명사 'N<sub>1</sub>'

'這'와 '那'의 지시대명사가 'N<sub>1</sub>'을 담당하는 '使'겸어문과 '令'겸어문은 상당

히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CCL語料庫<sup>3)</sup>를 검색하면 ‘這使’는 모두 4200여개의 예문이 나오고, ‘這令’은 342개의 예문 중 199개 예문만 겹어문에 해당된다. 따라서 ‘這使’의 겹어문이 ‘這令’의 겹어문보다 훨씬 보편적이고 상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시대명사 ‘那’를 검색해도 마찬가지이다. ‘那使’는 172개의 검색 예문 중 겹어문이 59개이고, ‘那令’은 252개의 검색 예문 중 단지 5개 예문만 겹어문에 해당된다. 따라서 ‘這’와 ‘那’의 지시대명사가 ‘N<sub>1</sub>’을 담당할 때, ‘使’겹어문이 ‘令’겹어문 보다 훨씬 사용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那’가 사용된 ‘令’겹어문에서 ‘V<sub>2</sub>’의 대부분은 심리활동 동사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사용된다.

(46) 她終於凭〈嬌妻〉獲得電視最佳女主角獎, **那令**她更開心。

(47) 我做好了失望的準備, 第一場比賽的結果證實了我的擔心, 但**那并不令**我震驚。

그러나 ‘那’가 사용된 ‘使’겹어문의 경우 ‘V<sub>2</sub>’는 위의 ‘令’겹어문처럼 심리활동 동사나 심리상태의 형용사가 사용될 뿐 아니라, 변화성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아래 (48)의 경우 ‘使’를 ‘令’으로 바꿀 수 없다.

(48) 我當然不喜歡她那副樣子, 因為**那使**她變得很不好看, 于是我便打斷了父親。

한편 ‘使’겹어문에는 ‘使’자 앞에 ‘會, 將’이 와서 미래 가능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9) 但是**那會使**她心跳, 使她忍受或反抗, 那是生命。

(50) 決不要讓她看出你剛剛哭過, **那會使**她難過的。

3)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 <http://ccl.pku.edu.cn> 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 (CCL語料庫) 참고.

위의 (49)와 (50)처럼 ‘那會使…’, ‘那將使…’는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을 ‘那會令…’, ‘那將令…’으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令’겸어문은 미래에 발생할 가능 상황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의문대명사 ‘N<sub>1</sub>’

의문대명사 ‘誰’와 ‘什麼’가 ‘令’겸어문에서 주어인 ‘N<sub>1</sub>’으로 사용되는 구문은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다. CCL語料庫에도 아래 4개의 예문 밖에 없다.

- (51) “心情不好? 爲什麼心情不好? 是誰令你不高興?”
- (52) 沈培問, “是誰令你動氣到這種地步?”
- (53) 什麼令我變得如此地不近人情?
- (54) 究竟又是什麼令努爾哈赤含恨逝去?

위의 ‘誰’와 ‘什麼’가 사용된 ‘令’겸어문을 보면, ‘誰’와 ‘什麼’ 앞에 ‘是’가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반면, ‘誰’와 ‘什麼’가 사용된 ‘使’겸어문은 ‘令’겸어문에 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모두 42개의 예문이 있다.

- (55) 更多的人應該反思, 誰使他走上歧途?
- (56) 什麼使你變得這樣異常?
- (57) 誰能使我們擺脫這種厄運?

따라서 의문대명사가 ‘N<sub>1</sub>’으로 사용될 때, ‘使’겸어문이 더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 (4) 명사화 ‘N<sub>1</sub>’

‘명사/동사 + 之 + 형용사’ 구조가 ‘使’겸어문과 ‘令’겸어문의 주어인 ‘N<sub>1</sub>’

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8) 美國總統里根遇刺, 20分鐘後消息已傳到世界各地, 速度之快令人難以想像。
- (59) 其名目之繁多令人觸目驚心。
- (60) 她的氣派之大已使女兒不敢叫媽。
- (61) 進攻速度之猛, 節奏變化之快使頗有實力的日本隊應接不暇。

‘명사/동사 + 之 + 형용사’ 구조가 명사화되어 사용될 때, ‘승’겹어문은 210개의 예가 보이고, ‘使’겹어문은 79개의 예가 보인다. 따라서 ‘승’겹어문이 좀 더 상용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5) 동사성 성분 ‘N<sub>1</sub>’

‘使’겹어문에서 ‘N<sub>1</sub>’은 명사성 성분이 주로 담당하지만, 동사성 성분이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袁毓林(2002)의 통계에 따르면, ‘使’겹어문의 주어를 분석해 보면 명사성 성분이 사용되는 비율은 55%이고, 동사성 성분이 사용되는 경우는 45%로 파악된다. 아래의 (62)와 (64)는 모두 동사성 성분이 주어로 사용된 예이다.

- (62) 有錢能使鬼推磨。
- (63) 虛心使人進步, 驕傲使人落後。
- (64) 有那麼多球迷真誠地用‘甯, 姚’來向他打招呼真是令人驚訝。

그렇다면 ‘승’겹어문의 주어 ‘N<sub>1</sub>’은 어떠할까? CCL語料庫를 검색하면 대부분 명사성 성분이 담당하고, 동사성 성분이 주어가 되는 경우는 위의 (64)처럼 아주 드물다.

2) ‘使’겸어문과 ‘令’겸어문의 ‘V<sub>2</sub>’

‘使’겸어문과 ‘令’겸어문의 ‘V<sub>2</sub>’는 모두 ‘N<sub>1</sub>’이 ‘N<sub>2</sub>’에게 시켜 발생하는 결과나 상태를 표현한다. 즉 ‘使’겸어문과 ‘令’겸어문에서 ‘V<sub>2</sub>’는 [+결과]의 의미 특성을 갖는다. 통사적으로 ‘V<sub>2</sub>’를 담당하는 품사는 주로 형용사나 형용사구이다. 동사 단독으로 ‘V<sub>2</sub>’를 담당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 (65) 同志, 你這樣的態度令人失望。  
 (66) 兒子的行動使他舒服極了, 舒服得直想打呼嚕。

위의 ‘失望, 舒服’처럼 형용사가 주로 ‘V<sub>2</sub>’로 사용되고, 동사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동사가 사용될 경우에는 동사구를 이루어 사용되는데, 述賓구조, 狀中구조, 連動구조, 主謂구조 등이 ‘V<sub>2</sub>’를 담당한다.

- (67) 任何溫情的表示都會使這個孩子受到錯誤的鼓勵。  
 (68) 有時他在街上行走的不同少女臉上會依稀發現她的特徵和神情, 這往往使他暗暗一怔。  
 (69) 角積結着的干涸的眼屎上湧出黃蠟蠟的新鮮眼屎, 令人看了作嘔。  
 (70) 鏡子裏汪先生鐵青的臉上, 扑扑兩下, 使他面目模糊。  
 (71) 白孝武很受鼓舞, 得到父親贊許令他情緒高揚。

위에서 (67)의 ‘V<sub>2</sub>’는 述賓구조이고, (68)의 ‘V<sub>2</sub>’는 ‘부사어+중심어’의 狀中구조, (69)의 ‘V<sub>2</sub>’는 일종의 連動구조이다. (70)과 (71)은 ‘使’겸어문과 ‘令’겸어문의 主謂구조이다.

‘使’겸어문과 ‘令’겸어문의 ‘V<sub>2</sub>’는 통사적으로 위와 같은 구조를 취하지만, 의미론적으로 분석하면 모두 ‘V<sub>2</sub>’는 모두 [+결과]의 의미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使’겸어문과 ‘令’겸어문의 ‘V<sub>2</sub>’는 의미론적으로 좀 다르다. ‘使’겸어문의 ‘V<sub>2</sub>’는 동태(動態)의 변화를 나타내고, ‘令’겸어문의 ‘V<sub>2</sub>’

는 정태(靜態)의 결과를 묘사하는데 치중한다. CCL語料庫에서 ‘使’겹어문과 ‘令’겹어문의 ‘V<sub>2</sub>’ 중, 상용적인 형용사를 검색하여 그 빈도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滿意	高興	興奮	失望	驚訝	痛心	厭惡	不快	欣喜
使人	37	31	29	22	21	19	9	8	7
令人	1246	366	301	314	355	311	195	184	301

‘V<sub>2</sub>’가 형용사 ‘滿意’인 경우 ‘使’겹어문과 ‘令’겹어문에 사용된 빈도수는 37회와 1246회였다. 다른 상용적인 형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使’겹어문 보다 ‘令’겹어문에 사용된 빈도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V<sub>2</sub>’가 형용사 일 때 ‘令’겹어문의 사용 범위가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겹어문 사용 오류 유형 분석

중국어 문형을 연구하다 보면 다양한 ‘N1 + V1 + N2 + V2’ 구조를 만나게 된다. 이 동일한 층차의 문형에 대해 통사적 분석을 적용하여 문형을 나누게 되는데, 각각 연동문, 主述구조를 목적어로 받는 문장, 겹어문, 겹어문과 연동문을 겸하는 重義 문장으로 귀납된다.<sup>4)</sup> 이러한 문형별 차이와 앞장과 같이 겹어문에 대한 이론적 어법 기능과 유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하다 보면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들을 많이 구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론과 실제가 제대로 결합되지 못하고, 실

4) 閔載泓, 「겹어문의 형성과 겹어문 변별을 위한 어법 기제」, 『中國語文學論集』 제84호, 2014. 이 글에 동일한 ‘N1 + V1 + N2 + V2’구조가 각각 다양한 문형으로 변별되는 어법적 기제, 변별자질, 어법적 메카니즘 등이 분석되어 있다.

제 활용에서 많은 착오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검어문 교학도 교육 현장에서 여러 오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어 교학에서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검어문 사용의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성분 누락 오류

검어문 문형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을 구성하는 각각의 네 성분을 빠뜨려서 생기는 누락의 오류가 있다. ‘N<sub>1</sub>’ 누락, ‘V<sub>1</sub>’ 누락, ‘N<sub>2</sub>’ 누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N<sub>1</sub>’ 누락 오류

(72) \* 到晚上, 其中一個和尚夢到了神, 使神感動他們祈禱什麼。

(72a) 到晚上, 其中一個和尚夢到了神, 他們的祈禱使神感動了。

(73) \* 由‘三個和尚沒水喝’這個故事中, 使我想到了老撾類似的故事。

(73a) ‘三個和尚沒水喝’這個故事使我想到了老撾類似的故事。

(74) \* 現在我已教了一個學期的時間了, 慢慢地使我喜歡上這裏了。

(74a) 現在我已教了一個學期的時間了, 這使我慢慢地喜歡上這裏了。

(75) \* 就在這短文中, 讓我從中得到了啓示。

(75a) 這短文讓我從中得到了啓示。

일반적으로 주어인 ‘N<sub>1</sub>’이 생략될 수 있지만, 검어문에서는 ‘N<sub>1</sub>’이 생략될 수 없다. 위의 예문에서는 모두 ‘N<sub>1</sub>’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N<sub>1</sub>’을 정확하게 사용해야만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될 수 있다. (72)에서 ‘感動’은 자동사(不及物動詞)로 빈어를 취할 수 없는데, 빈어가 잘못 위치하였고, ‘感

動'의 주어가 빠져있다. 따라서 (72a)처럼 'N<sub>1</sub>'인 '他們的祈禱'가 있어야 어법적 문장이 된다.

(75)에서 '就在這短文中'은 개빈구조로 뒷 구절을 수식하는 부사어(狀語)가 되었고, 뒷 구절은 완전한 主謂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사어 '就在這短文中'를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5a)처럼 '這短文'이라는 분명한 주어가 있어야 완성해진다. 즉 (75)에서는 주어 'N<sub>1</sub>'이 누락된 형태로, 문법적 오류이다.

### (2) 'V<sub>1</sub>' 누락 오류

(76) \* 這友件之間的關係不但可以消除彼此間的隔膜, 更可以互相爲好朋友。

(76a) 這友件之間的關係不但可以消除彼此間的隔膜, 更可以使互相成爲好朋友。

(77) \* 剛到美國時, 每個美國人都看起來像壞人, 我不放心。

(77a) 剛到美國時, 每個美國人都看起來像壞人, 讓我不放心。

(78) \* 今天的參觀我們很高興。

(78a) 今天的參觀使我們很高興。

겹어문에서 겹어동사 使, 讓은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 구조에서 'V<sub>1</sub>'을 담당한다. 겹어동사는 사역의 의미를 담당하게 되고, 문장 전체의 어떤 예상 결과를 유도하게 된다. 그 결과는 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V<sub>2</sub>'동사를 통해 나타난다. 위의 예문에서는 모두 사역의 의미를 갖는 겹어동사가 누락된 것을 알 수 있다.

### (3) 'N<sub>2</sub>' 누락 오류

(79) \* 他們幫了我不少的忙, 使很快地適應環境。

(79a) 他們幫了我不少的忙, 使我很快地適應環境。

(80) \* 另外一個最深刻難忘的就是黃山的景色, 它的景致簡直使難忘。

(80a) 另外一個最深刻難忘的就是黃山的景色, 它的景致簡直使我難忘。

(81) \* 如果貴公司讓當導游的話, 我很高興。

(81a) 如果貴公司讓我當導游的話, 我很高興。

겸어문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 구조에서 'N<sub>2</sub>'는 'V<sub>2</sub>'의 주체(施事)주어로, 일반적으로는 생략될 수 없다. (79)에서 'V<sub>2</sub>'인 '使很快地適應環境'에는 의미론에서 언급되는 주체 주제항<sup>5)</sup>(施事題元)이 없는데, 사역 의미의 대상인 '我'를 생략할 수 없다. 예문 (80)과 (81)도 마찬가지이다.

#### (4) 'V<sub>1</sub> + N<sub>2</sub>' 누락 오류

(82) \* 母親有點變老的樣子感到傷心。

(82a) 母親有點變老的樣子讓我感到傷心。

(83) \* 爲了更了解我的情況, 我寄給你們我的相關文件。

(83a) 爲了讓你們更了解我的情況, 我寄給你們我的相關文件。

(84) \* 父親對我的教導成爲現在的我。

(84a) 父親對我的教導使我成爲現在的我。

위 예문을 보면 단지 원인과 결과를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 원인에서 결과가 유도되기까지의 겸어동사와 대상이 빠져 있다. (82a)의 '讓我', (83a)의 '讓

5) 겸어문 변별을 위한 여러 어법 요인들과 어법 기제 중에서 주제항(題元 theme)은 의미(語義)의 단위로, 한 문장 속에서 '동사'와 관련된 의미 단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他在朋友家裏喝茶.'라는 문장을 주제항으로 분석하면 '他'는 施事題元(주체 주제항), '在朋友家裏'는 方所題元(장소 주제항), '茶'는 受事題元(객체 주제항)이 된다. 한 문장 속에서 동사 '喝'와 관련된 다른 성분들을 주제항으로 분석하게 된다.

你們, (84a)의 ‘使我’와 같은 ‘V<sub>1</sub> + N<sub>2</sub>’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V<sub>2</sub>’의 관련 어구 누락

(85) \* 這個病導致他的身體很嚴重的缺點。

(85a) 這個病導致他的身體產生了很嚴重的問題。

(86) \* 對我來說, 遇見這樣一個人, 他使我走人生的道路。

(86a) 對我來說, 遇見這樣一個人, 他使我走上了人生的道路。

(87) \* 每天的學習使他的漢語提高。

(87a) 每天的學習使他的漢語提高了。

(85)는 ‘V<sub>2</sub>’가 누락된 오류이다. (86)에서는 ‘V<sub>2</sub>’인 ‘走’ 뒤에 결과보어와 조사가 빠져있다. ‘走上了’로 해야만 완전한 문장이 된다. (87)에서도 변화를 의미하는 어기조사 ‘了’를 추가해야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될 수 있다. (86)과 (87)에 보이는 ‘使’겸어문은 의미론으로 접근할 때, [+완성시대], [+변화]의 의미 특성이 있어야 문장이 완전해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88) 他常常幫助我, 無論在生活上還是學習上都使我有了很大的啓發。

(89) 無論在什麼環境下, 他都使人覺得不舒服。

‘使’겸어문 (88)에는 ‘有了’처럼 완료의 시태를 갖는 동태조사 ‘了’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89)에는 어떤 변화의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舒服’에서 ‘不舒服’로의 변화가 있다. 따라서 위 (86)과 (87)의 ‘使’겸어문에 문법적, 의미론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2) 성분 추가 오류

겸어문을 활용하면서 성분을 잘못 추가해서 생기는 오류가 많다. 중국어 교학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로 모두 문법에 맞지 않는 틀린 문장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90) \* 我不要使我父母失望了。

(90a) 我不要使我父母失望。

(91) \* 聽他們的話可以使自己的進步。

(91a) 聽他們的話可以使自己進步。

(92) \* 找到了允許給自己偷懶的借口。

(92a) 找到了允許自己偷懶的借口。

(90)에서 ‘使’ 앞에 수식성분 ‘不要’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 되고, ‘使’ 뒤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태 조사 ‘了’는 적절치 않다. (91)에서는 ‘使’자 뒤의 ‘自己的進步’라는 명사성 성분만 존재한다. 겸어문의 ‘V<sub>2</sub>’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使自己進步’로 바꾸어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어법적 문장이 된다. (92)에서 ‘給’는 ‘給與’(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允許’에 이미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을 골라 ‘允許自己’로 하는 것이 옳다. (90)(91)(92) 모두 추가된 성분이 잘못 사용된 예이다.

## 3) 성분 착오

성분을 누락하거나 추가해서 생기는 오류가 아니라, 문형 중의 한 성분 그 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가 있다. 주로 선행동사인 ‘V<sub>1</sub>’와 ‘V<sub>2</sub>’의 사용에서

착오가 생기게 된다.

(1) 'V<sub>1</sub>' 중복 착오

(93) \* 一家人一邊攀一邊談最近的情況, 使得讓我們家人很深地互相了解了。

(93a) 一家人一邊攀一邊談最近的情況, 使得我們家人很深地互相了解了。

(94) \* 可是學校不允許讓我上本科。

(94a) 可是學校不允許我上本科。

(93)과 (94)에서 사역의 의미를 갖는 겸어동사 'V<sub>1</sub>'이 중복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 개의 겸어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2) 'V<sub>1</sub>' 착오

(95) \* 科技的發達, 使到事物改變加快。

(95a) 科技的發達, 使事物改變加快。

(95)에서 겸어동사로 사용된 'V<sub>1</sub>'인 '使到'는 한 개의 단어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3) 'V<sub>1</sub>' 혼용 착오

겸어동사의 용법이나 어법적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겸어동사를 잘못 혼용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96) \* 爸爸使我明天休息。  
 (96a) 爸爸讓我明天休息。

(96)에서는 ‘使’와 ‘讓’의 어법적 기능을 분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使’의 앞에는 원인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고, ‘使’의 뒤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동사 ‘休息’은 결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결과]의 의미특성을 갖기 때문에, 명령과 사역의 의미를 전달하는 ‘讓’으로 바뀌야 문법에 맞게 된다. ‘使’가 들어간 겹어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N<sub>1</sub>’이 ‘N<sub>2</sub>’로 하여금 ‘V<sub>2</sub>’하게 하다는 뜻으로, 어떤 원인이나 조건으로 결과가 발생하는 구문에 주로 사용된다. 아래의 (97)(98)(99)가 모두 그러하다.

- (97) 好的計劃能使工作進展順利。  
 (98) 看書能使人聰明。  
 (99) 他的技術使我佩服。

또한 ‘使’자 겹어문의 후행동사인 ‘V<sub>2</sub>’는 동사 단독으로 올 수 없다. 어떤 결과를 유도하거나 부가성분이 있어서 결과로 인한 변화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문장이 가능하게 된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100) \* 爸爸使他學習。  
 (100a) 爸爸使他沒辦法學習。  
 (100b) 爸爸使他能夠學習下去。  
 (100c) 爸爸想了很多辦法, 使他學習得比誰都好。

(100)에서 후행술어는 ‘學習’로 동사 단독이다. 술어 성분 앞뒤로 어떤 부가적인 성분이 없다. 후행술어 앞에 부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뒷부분에 보어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어법적 문장이 된다. 그러나 (100a)(100b)(100c)처럼 ‘學習’ 앞에 부사어가 오거나, 뒤에 술어의 결과를 보충해주는 보어 성분이 위치하게 되면 이 ‘使’겹어

문은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이러한 ‘使’의 어법적 기능과 어휘적 운용을 교학에서 지적해 주는 것이 겹어문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다음의 예문을 보자.

(101) 爸爸讓~~我~~我打電話給他。

(101)에서 겹어동사 ‘讓’의 의미에 따라 이 문장은 歧義(重義, ambiguity)가 생길 수 있다. 명령의 의미만을 생각하면 ‘아빠는 나에게 전화하도록 시켰다’가 될 수 있고, ‘讓’을 ‘允許, 容許’의 뜻으로 해석하면 ‘아빠는 내가 전화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어휘 운용의 차이도 교학에서 중요한 부분일 될 수 있을 것이다.

#### (4) ‘V<sub>2</sub>’ 착오

(102) \* 我的發音不準, 所以讓中國人產生了笑的時候很多。

(102a) 我的發音不準, 所以讓中國人笑了很多次。

(103) \* 這些真的讓我感覺到世界上最幸福的女人之一。

(103a) 這些真的讓我感覺到我是世界上最幸福的女人之一。

겹어문에서 ‘V<sub>2</sub>’는 ‘V<sub>1</sub>’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N<sub>2</sub>’와 ‘V<sub>2</sub>’ 사이에 주술구조를 이루어야 하는 어법적 기능을 놓치게 되면, 문법적인 문장 바로쓰기가 불가능해진다. 오류가 생겨난다. 위의 (102)와 (103)은 모두 그러한 예이다.

#### 4) 문형 구조 착오

##### (1) '述賓구조'로 잘못 사용

- (104) \* 最後任務氣我, 可是那個時候我沒有辦法。  
(104a) 最後任務使我很生氣, 可是那個時候我沒有辦法。
- (105) \* 我們不能也沒有這樣的權力滿意他們。  
(105a) 我們不能也沒有這樣的權力使他們滿意。
- (106) \* 我很感動他的態度。  
(106a) 他的態度使我很感動。

위에서 '氣, 滿意, 感動'은 모두 빈어를 취할 수 없는 자동사나 형용사이다. 그런데 (104)에서 '氣我'의 述賓구조로 잘못 사용하였다. (105)에서도 '滿意他們'의 述賓구조로 잘못 표현하였다. (106)에서도 '感動他的態度'의 述賓구조는 틀린 문장(病句)이다. 만약 이 단어들을 통해 사역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면 겹어문의 'V<sub>2</sub>'로 사용해야 어법적 기능에 부합하게 된다. 이러한 다른 예를 들면 '開心, 破裂, 失望, 成熟' 등이다.

##### (2) '把자문'으로 잘못 사용

- (107) \* 人們爲了把自己的心理滿足而去郊區玩。  
(107a) 人們爲了使自己的心理得到滿足而去郊區玩。
- (108) \* 愛好可以說是我們個人的動力, 把我們生活會充滿了意義。  
(108a) 愛好可以說是我們個人的動力, 會使我們生活會充滿了意義。

'使'겹어문을 사용해야 하는 문장에 '把'자 구문을 사용하는 오류 역시 빈번

하다. ‘使’겹어문과 ‘把’자문은 모두 일종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把’자문에서는 ‘賓語를 動詞가 어떻게 처리하다’라는 처치의 의미가 더 강하다. 또한 ‘使’자와 ‘把’자 구문 모두 일종의 결과를 나타내지만, ‘把’자 구문에서의 ‘N<sub>2</sub>’는 ‘V<sub>2</sub>’의 객체(受事)이고, ‘使’자 구문에서의 ‘N<sub>2</sub>’는 ‘V<sub>2</sub>’의 주체(施事)라는 차이를 보인다. (107)에서 ‘N<sub>2</sub>’인 ‘自己的心理’는 ‘V<sub>2</sub>’인 ‘得到滿足’를 지배하는 주체(施事)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使’겹어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다. (108)에서도 ‘N<sub>2</sub>’인 ‘我們的生活’와 ‘V<sub>2</sub>’인 ‘充滿了’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使’겹어문 구문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비겹어문 구조’로 잘못 사용

(109) \* 如果大家有不同的觀點而不去了解對方的看法, 那就會產生家庭成員的壓力。

(109a) 如果大家有不同的觀點而不去了解對方的看法, 那就會使家庭成員產生壓力。

(110) \* 護士這工作不但工作勞累, 而且精神的壓力也很大。

(110a) 護士這工作不但工作勞累, 而且使人的精神壓力也很大。

(109)에서 ‘產生’은 타동사로 ‘產生壓力, 產生誤會’ 등과 같이 목적어를 직접 받는다. 특히 ‘N<sub>2</sub>’인 ‘家庭成員’을 겹어로 사용해야지, ‘壓力’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사용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다. (110)에서도 앞절의 주어 ‘護士’와 뒷절의 주어 ‘精神的壓力’가 의미적으로 대등하게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겹어문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겹어문 구조’로 잘못 사용

(111) \* 有時我不聽話甚至打我, 打得讓我走不動。

(111a) 有時我不聽話甚至打我, 打得我走不動。

(112) \* 但後來又來了一個和尚, 大家都希望讓他去山下打水去。

(112a) 但後來又來了一個和尚, 大家都希望他去山下打水去。

(111)에서 ‘我走不動’은 직접적으로 ‘打’의 정도보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겹어문이 필요치 않다. (112)에서도 ‘希望’은 주술구를 목적절로 받는 동사이기 때문에, ‘希望’ 뒤에 겹어문을 사용한 것은 옳지 않다.

## 5. 나가기

이 글은 겹어문 문형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에 대한 전면적 고찰이다. 각 성분이 갖고 있는 어법 기능과 의미 관계를 분석하면 겹어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겹어동사 ‘V<sub>1</sub>’은 일반적으로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유형이 보편적이지만,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겹어동사에 주목하였다.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겹어동사 ‘V<sub>1</sub>’을 세분하여 [+도움 협조], [+애증 호오], [+소유 존재], [+호칭 인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사동][+도움 협조]의 유형은 연동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겹어문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중의성(歧義 ambiguity)이 존재하였다. [-사동][+애증 호오] 역시 겹어문으로 볼 수도 있고, ‘주술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의 문형으로 파악할 수도 있었다. [-사동][+소유 존재]의 유형은 분명한 겹어문이지만, 마지막 [-사동][+호칭 인정] 유형은 [+수여]의 의미특성을 갖는 이중목적어 구문으로도 파악이 가능하였다. 결국 [-사동]의 의미특성을 갖는 겹어문은 다른 문형과의 중간쯤에 위치한 경계에 있는 구문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使’겹어문과 ‘使’겹어문에 대한 비교는 ‘N<sub>1</sub>’과 ‘V<sub>2</sub>’를 이용하여 두 겹어문의 어법 기능 차이를 살펴보았다. ‘使’이 ‘使’와 달리 [+명령]의 의미특성을 갖기 때문에 문장 쓰임에서 변별이 생겼고, ‘那會使…’, ‘那將使…’를 ‘那會使…’,

‘那將令...’으로 바꿀 수 없었다. 왜냐하면 ‘令’겹어문은 미래에 발생할 가능 상황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CCL語料庫 분석에서 ‘V<sub>2</sub>’가 형용사일 때 ‘使’겹어문 보다 ‘令’겹어문에 사용된 빈도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令’겹어문의 사용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어 교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겹어문의 실제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N<sub>1</sub> + V<sub>1</sub> + N<sub>2</sub> + V<sub>2</sub>’의 네 성분 중 한 성분이 빠져서 누락되는 오류, 다른 성분을 추가해서 생기는 오류, 성분 자체를 착오해서 생기는 오류, 문형구조를 잘못 판단한 오류 등으로 나누어 그 오류 분석을 진행하였다. 겹어문 어법 이론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에서의 차이가 생기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론은 실재를 뒷받침하고, 그 실제 활용에서의 오류는 다시금 어법 이론을 따져보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 參考文獻

- 賈潤娥(2011), 「由他們幫助我洗碗來看漢語的兼語句」, 金田 總第306期.
- 甘露(2001), 「睡虎地秦簡中的連謂句和兼語句」, 青海師專學報 第3期.
- 高更生(1996), 『漢語教學語法研究』, 語文出版社.
- 馬德全(2003), 「論現代漢語兼語句」, 內蒙古師範大學.
- 馬德全·王利民(2010), 「兼語句的同形結構辨析」, 沈陽師範大學學報 第34卷.
- 馬文佳(2011), 「外國留學生兼語句習得研究及偏誤分析」, 西北大學.
- 孟琮 等(1987), 『動詞用法詞典』, 上海辭書出版社.
- 민재홍(2004), 「현대중국어 겹어문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28호.
- 민재홍(2014a), 「겹어문의 형성과 겹어문 변별을 위한 어법 기제」, 중국어문학논집 제84호.
- 민재홍(2014b), 「현대 중국어 겹어문의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분석」, 외국학연구 제29집.
- 房玉清(1992), 『實用漢語語法』,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范曉(1996), 『三個平面的語法觀』,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 <http://ccl.pku.edu.cn>, 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 (CCL語料庫)
- 徐亞娣(2015), 「留學生現代漢語兼語句習得研究」, 安徽大學.
- 徐昌火(2003), 『중국어문법사전』, 넥서스CHINESE.
- 石月蘭(2010), 「淺議現代漢語中的兼語句」, 黑龍江教育學院學報 第29卷 第11期.
- 宋玉柱(1995), 『語法論稿』,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楊帆(2011), 「兼語句的來源及特徵」, 洛陽師範學院學報 第30卷 第3期.
- 袁毓林(2002), 「漢語句子的文意不足和結構省略」, 漢語學習 第3期.
- 游汝杰(2002), 「現代漢語兼語句的句法和語義特徵」, 漢語學習 第6期.
- 劉云(2006), 「北京話使役兼表被動現象研究」, 北京語言大學.
- 李文星(2004), 「使, 叫, 讓在現代漢語兼語句中的語法化」, 河南大學.
- 李玉菲(2010), 「外國留學生兼語句運用的偏誤分析」, 華東師範大學.

- 張云香(2009), 「也談兼語句」, 甘肅高師學報 第14卷 第4期.  
齊瀟揚(2000), 『現代漢語短語』, 華東師範大學出版社.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陳長虹(2011), 「現代漢語使, 令, 讓字句比較研究」, 蘇州大學.  
陳宗明(1993), 『漢語羅輯概論』, 人民出版社.  
許慧娟(2012), 「現代漢語兼語句語篇分析」, 江西師範大學.  
邢欣(2004), 『現代漢語兼語式』, 北京廣播學院出版社.  
胡裕樹(1996), 『動詞研究綜述』, 山西高校聯合出版社.

Abstract

Semantic Feature Analysis and Grammatical Error Types of  
“Jianyuju(兼語句)” in Modern Chinese

Min, Jae-hong

“Jianyuju”(‘ $N_1 + V_1 + N_2 + V_2$ ’) is a predicate type that arouses people’s constant discussion. In Modern Chinese “Jianyuju” means a sentence with its object plays as subject of the second verb simultaneously. The first verb in a “Jianyuju” has meaning of incurring and results in appearance of the second verb.

This paper intends to have a semantic feature analysis and grammatical error pattern of “Jianyuju(兼語句)” in Modern Chinese. In respect of syntax, ‘ $V_1$ ’ of this construct is a combination of object and subject, in respect of semantic ‘ $N_1$ ’ is the conductor of ‘ $V_1$ ’, ‘ $N_2$ ’ is the receiver of ‘ $V_1$ ’ and conductor of ‘ $V_2$ ’, and there is a controlling relation between ‘ $N_1$ ’ and ‘ $N_2$ ’. This paper focus on [-致使] semantic feature and compare with “Shi Jianyuju(使兼語句)” and “Ling Jianyuju(令兼語句)”.

After analyzing the errors of students, the essay classifies the errors into four types: lack of elements, redundant adding of elements, errors of elements, errors of the structure. Since the main problems concentrating on the usage of the first type of “Jianyuju” structure, the essay analyzes the errors of each type and gives some possible reasons for them.

Key words : “Jianyuju” structure, semantic feature, “Shi Jianyuju(使兼語句)”, “Ling Jianyuju(令兼語句)”, errors analysis

투 고 일 : 2016. 1. 10. / 심 사 일 : 2016. 1. 15. ~ 2016. 2. 15. / 게재확정일 : 2016. 2. 16.